

인권정보자료실
R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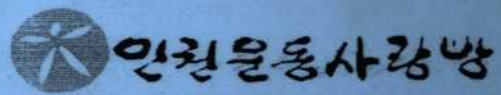
인권하루소식

(제2367호 ~ 제2485호)

합본 21호
(2003년 7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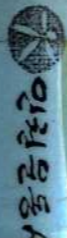
인권하루소식
(제2367호 ~ 제2485호)

합본 21호
(2003년 7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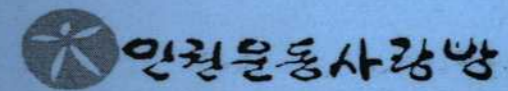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3층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인권정보자료실
R1.1.21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21호

(제2367호 ~ 제2485호)

2004. 5

차례

부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21호 색인

/265

제2367호(2003. 7. 1)

/1

- 1면 · 철도구조'개약'법, 본회의 통과 - 노동자들, 졸속 입법·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철도 공공성과 4·22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2면 ·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제2368호(2003. 7. 2)

/3

- 1면 ·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 “미국과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국 강요 거부 촉구
- 2면 ·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아웃사이더」 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전교조 간부들 농성돌입

제2369호(2003. 7. 3)

/5

- 1면 · 원시적 차별, 여전히 심각하다 - 참교육학부모회, 차별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 <만화사랑방> 오호통재! 장화홍련 - 정부와 기업에 착취당하는 한국노동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 2면 ·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제2370호(2003. 7. 4)

/7

- 1면 ·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특별 기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 <클릭! 인권정보자료> 대안을 찾아나선 반세계화 운동 -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2면 ·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 계약 약관에 정의행위 금지 조항 뒤...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제2371호(2003. 7. 5)

/9

- 1면 ·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2면 ·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 이주노동자의 삶과 동행한 네 편의 영화 - 인권영화제 제작 지원 작품 <여정> 배급 앞뒤

제2372호(2003. 7. 8)

/11

- 1면 ·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 “초국적 자본의 권리현장은 가라” -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닷 올려
- 2면 ·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주간인권호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제2373호(2003. 7. 9)

/13

- 1면 ·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 ‘교육청, 네이스 선택 중용’ 증거 드러나 -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 2면 ·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 노조원 8천 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 3면 · <성명서>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제2374호(2003. 7. 10)

/16

- 1면 ·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 한미‘투기’협정이 물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만화사랑방> 파견노동자 ‘착취’에 관한 법률
- 2면 ·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 피해여성 치료와 재활 지원센터, 인적·물적 토대 미흡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제2375호(2003. 7. 11)

/18

- 1면 ·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 <클릭! 인권정보자료>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 자료묶음
- 2면 ·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 한미동맹관계 조정·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 전략 마련해야
- ‘제국’을 바라보는 7개의 시선 - 폭력과 억압 장치 고발하는 <옵니버스 제국> 제작 막바지

제2376호(2003. 7. 12)

/20

- 1면 ·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2면 ·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폭행·감시·집단 따돌림의 실상

제2377호(2003. 7. 15)

/22

- 1면 ·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산재 인정도 못받고 4년간 병원 전전” -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
- 2면 ·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 <주간인권호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제2378호(2003. 7. 16)

/24

- 1면 ·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장애인에게 단힌 교육의 문을 연다 -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 “인권은 머리가 아닌 생활로 깨닫는 것” - 8월 11~13일, 어린이 인권캠프 개최

제2379호(2003. 7. 17)

/26

- 1면 ·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
- <만화사랑방> 신 남량특집 :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 2면 · 전·의경 구타 사망, “국가에서 책임져야” - 유가족 및 인권단체 경찰청 항의, 인권위에 대책 마련 촉구
-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 「지방 위의 꾸마라 아저씨」

제2380호(2003. 7. 19)

/28

- 1면 ·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 건대생 2명 구속... <자본론> 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2면 ·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 특수고용자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지지 철회 선언

제2381호(2003. 7. 22)

/30

- 1면 ·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줄 시위
-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 2면 · <김철준의 인권이야기>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주간인권호름> (2003년 7월14일 ~ 7월 21일)

제2382호(2003. 7. 23)

/32

- 1면 ·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 없다”?
-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애도 표명’마저 거절 - 동성애자 인권문제 꺼안는 교회 변화 절실

제2383호(2003. 7. 24)

/34

- 1면 ·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 2면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만화사랑방> 환자부담 외면하는 ‘참여복지’

제2384호(2003. 7. 25)

/36

- 1면 · “게시물 삭제 요구는 공안탄압” - 민주노총,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운영 재개

-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쟁의 폭력을 기억하라 -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 2면 ·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명동성당 집회, 사진신고 없이는 안된다? -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행 신고

제2385호(2003. 7. 26)

/38

- 1면 ·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 인권단체들,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비판
- <논평> ‘김일성 계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2면 ·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을 계속된다 -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제2386호(2003. 7. 29)

/40

- 1면 · “빠빠지게 일했더니 나나라뇨?” -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 2면 ·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교장단과 학사모의 ‘전교조 탄압’ 이증주
- 3면 · <박영화의 인권이야기> 장애여성에게 절박한 쉼터
- <주간인권호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제2387호(2003. 7. 30)

/43

- 1면 ·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3면 ·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김재홍(서울 7교 교사)
-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제2388호(2003. 7. 31)

/46

- 1면 ·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 <만화사랑방> 안기부 옛터를 유스호스텔로?
- 2면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 0.9평 징벌방에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제2389호(2003. 8. 1)

/49

- 1면 · <특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2면 ·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제2390호(2003. 8. 2)

/51

- 1면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
-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2면 · <특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제2391호(2003. 8. 5)

/53

- 1면 ·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험” 헌법소원
- “손배 · 가압류, 이렇게 좋을 걸 왜 관둬?” - 철도청, 97억여원 손배 · 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배청구
- 2면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아프리카, 약탈경제와 전쟁의 악순환
- <주간인권호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제2392호(2003. 8. 6)

/55

- 1면 ·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방사능 피해 유전, 드러나는 증거들
- 2면 ·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제2393호(2003. 8. 7)

/57

- 1면 · <특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끝>
- 전 국민을 알아서 기계 만든다
- <만화사랑방> 젊은 게 죄냐? : 18세 선거권 시행하라
- 2면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 성적소수자 지원센터 문열어 - 관련 DB구축 · 전문 연구활동으로 정책 대안 생산

제2394호(2003. 8. 8)

/59

- 1면 ·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 귀국보장 · 명예회복 추진위 출범...‘반성문’ 강요 중단 촉구
- <클릭! 인권정보자료>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한국의 히로시마』
- 2면 ·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제2395호(2003. 8. 9)

/61

- 1면 ·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논평>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
- 2면 · 영화로 돌아온 99년 시인들의 함성 - 반세계화의 상징 담은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
- ‘정치적 음모’ 아닌 ‘성매매’ 문제다 - 양길승 실장 파문, 성상납 · 접대문화 반성 계기 돼야

제2396호(2003. 8. 12)

/63

- 1면 ·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2면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영혼의 집’을 꿈꾸며
- <주간인권호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제2397호(2003. 8. 13)

/65

- 1면 ·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 아
-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옳아매
-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홍 교수를 찾아 - 준비된 자세 미흡...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제2398호(2003. 8. 14)

/67

- 1면 ·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만화사랑방> 평화시위가 폭력적이라고?
- 2면 · “평화전염병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는 어린이 인권캠프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 법무부는 성급, 되레 인권위는 뒷전
- 3면 ·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제2399호(2003. 8. 19)

/70

- 1면 · 주5일제 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뒤
-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2면 · <선미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제2400호(2003. 8. 20)

/72

- 1면 · “수지깎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2면 ·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제2401호(2003. 8. 21)

/74

- 1면 · 사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 수배해제모임 유영업 대표...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 근로기준법 개악 코 앞
- <만화사랑방> 장세동까지 마저 잡읍시다!
- 2면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끝>
-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

제2402호(2003. 8. 22)

/76

- 1면 · 반핵투쟁, 불안 넘어 전국으로 - 환경사회단체들, 핵폐기장 선정 철회 비상대책위 발족
- <클릭! 인권정보자료>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2면 ·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 건대상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얼번쩍 반딧불> “미국의 테러가 전세계 테러 부른다” - 촛스키의 미 군사패권주의 비판, <파워 앤 테러>

제2403호(2003. 8. 23)

/78

- 1면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2면 · “선로 점거, 고심 끝 마지막 호소였다” -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구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사는 사람 내쫓고 주거환경개선이라뇨?” - 대전 용두동 철거민 길거리 농성 400일째 맞아

제2404호(2003. 8. 26)

/80

- 1면 · 아픔의 현장에 ‘인권의 집’ 짓자 - 인권단체들, 남산 안기부 옛터 보존 대책기구 결성키로
-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다시 시작 - 부당노동행위 확인 집중...이사장 처벌까지 이어질까 주목
- 2면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
-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제2405호(2003. 8. 27)

/82

- 1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① 원진레이온 투쟁
-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
- 2면 · 반핵투쟁 주제로 나선 부안의 학생들 - 부안 초중고생 등교거부 속속...반핵 청소년모임도 결성 채 비
-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제2406호(2003. 8. 28)

/84

- 1면 ·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발족...긴급전화 개설
-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닷 올랐다 - 장대빛속 수요 촛불집회 활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 2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제2407호(2003. 8. 29)

/86

- 1면 · 평화적 생존권 파업, 대화로 풀라 - 50개 사회단체들, 경찰력 투입 철회·대화 복귀 촉구
- 화물운송노동자가 헨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2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3면 ·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김기연(민변 활동가)
- 부족한 이해가 낳은 미흡한 권고, 한국정부에 책임있다

제2408호(2003. 8. 30)

/89

- 1면 · 근로기준법 개악 날벼락 - 본회의 통과...저임·미조직 노동자 노동조건 대폭 후퇴
-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2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 공포의 이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
- 3면 ·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제2409호(2003. 9. 2)

/93

- 1면 · “자본의 탐욕 막으려 칸쿤으로” -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 "10년의 무게 던져버리고 낮은 곳으로" -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 2면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차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주간인권호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3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제2410호(2003. 9. 3)

/96

- 1면 · "구사대 가담자, 양심선언 뒤 폭행" - 인천 영하운수 노조탄압 심각...전문 노조파괴단까지 고용
-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 2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제2411호(2003. 9. 4)

/98

- 1면 · 흉국생명 노조 단식투쟁...왜? -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 <만화사랑방> 다윗과 골리앗 : 노무현의 개발독재
- 2면 · 삼성생명 현직과장, 산재요양 얻어내 - 구조조정 압박과 모멸감 이유...긴 싸움 끝에 승리 거둬
- 용두동 철거민 시청과 합의 - 저소득층 살 곳은 없어
- 3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등장
- 뿌리뽑아야 할 범죄, 고문

제2412호(2003. 9. 5)

/101

- 1면 · 화물노동자에겐 인권도 없나 - 경찰, 폭력연행 가혹 수사에도 업무 복귀각서까지 강요
- <클릭! 인권정보자료>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 - 『이윤보다 생명이다』
- 2면 · 16대 국회는 대인지리 피해자 외면말라 -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리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 영상집단 '결'의 카메라가 담는 세상 -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일상과 내면의 목소리 담아낼 터"
- 3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 고통의 땅 매향리는 아직도 "뚜두뚜두-쿵"

제2413호(2003. 9. 6)

/104

- 1면 ·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 2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 3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을 맞아> 10년의 새벽을 다시 깨운다

제2414호(2003. 9. 9)

/107

- 1면 ·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 스트라이커 시위 관련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
- 네이스 공대위, 교육정보위 참여키로 - "내·외곽에서 네이스 반대운동 함께 펼칠 터"
- 2면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제참사 <끝>

-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제2415호(2003. 9. 16)

/109

- 1면 · 농심 찌른 칸론회의 결국 결렬 - 최종선언문 도출 실패...이경해 씨 유해 18일 도착
-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 2면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주간인권호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제2416호(2003. 9. 17)

/111

- 1면 · 미군 4500명은 왜 후송되었을까 - 6천명 후송자 중 75%는 이유 의문...열화우라늄탄등 원인 지목
-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거늘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 2면 · 국방부, 대인지리 추가 도입한다 - 내년 예산 59억원 추가 책정...한국형 지뢰살포기도 개발
- '무노조 신화' 깨진 삼성, 보복 나셨다 - 삼성플라자, 노조 임원들 협박·감시 일삼아

제2417호(2003. 9. 18)

/113

- 1면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 인정 - 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
- 재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
- <만화사랑방> "내 대신 목숨 바쳐 싸워줘!" : 한국군 파병
- 2면 ·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제2418호(2003. 9. 19)

/115

- 1면 ·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2면 ·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불한당〉 편집위원)
- 정보의 사적 독점에 맞선 '올리브 프로젝트'

제2419호(2003. 9. 20)

/117

- 1면 ·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도 확장 의욕
- <논평> 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2면 · 이경해 씨 추모 촛불, '농민 생존권 사수' 핏불로! - 광화문 네거리서 고 이경해 씨 추모대회 열려
-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제2420호(2003. 9. 23)

/119

- 1면 ·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부당노동행위, 국감에서 철저히 밝혀내라" - 민주택시연맹, 부당노동행위 눈감는 노동부 강력 규탄
- 2면 · <선미의 인권이야기> '미래의 주역'과 오늘의 고통
- <주간인권호름> (2003년 9월 15일 ~9월 22일)

제2421호(2003. 9. 24)

/121

- 1면 ·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 351개 사회단체 '비상국민행동' 결성...27일 국제반전집회도
·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쐈기
- 2면 ·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제2422호(2003. 9. 25)

/123

- 1면 ·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민간인 학살" - 이라크 파견 평화활동가·의료진 공동 기자회견 열어
· 대법,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2면 ·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만화사랑방> 처벌 따블! : 이중처벌 사회보호법

제2423호(2003. 9. 26)

/125

- 1면 ·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장 접수...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 『새벽을 깨우는 A4 한 장 : 인권하루소식 이 전하는 161개의 인권이야기』
- 2면 ·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제2424호(2003. 9. 27)

/127

- 1면 ·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 국보법으로 얹어매고 다른 죄로 마무리?
·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2면 ·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제2425호(2003. 9. 30)

/129

- 1면 ·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
·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 호대책 시급
- 2면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길

제2426호(2003. 10. 1)

/131

- 1면 ·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 해야
- 2면 ·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제2427호(2003. 10. 2)

/133

- 1면 ·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 2면 ·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 <만화사랑방> 웃는 얼굴 다정해도... : 테러방지법 추진하는 국정원의 속내

제2428호(2003. 10. 7)

/135

- 1면 ·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 강모 씨 사망경위 배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2면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 <주간인권호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제2429호(2003. 10. 8)

/137

- 1면 ·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
- 2면 · "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무료소개소 폐쇄 중단 촉구

제2430호(2003. 10. 9)

/139

- 1면 ·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 고 촉구
- 2면 ·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 <만화사랑방> 공교육 짓밟는 교육개방 특별법

제2431호(2003. 10. 10)

/141

- 1면 ·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제2432호(2003. 10. 11)

/143

- 1면 · 스트라이커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2면 · 장기수들의 미세한 삶의 결 그렸다 - 김동원 감독의 <송환>, 장기수들과의 10년 인연 담아
·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클릭! 인권정보자료> 한 장의 시디롬으로 인권운동 10년을 본다- 「인권하루소식 시디롬」

제2433호(2003. 10. 14)

/145

- 1면 ·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 옷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해 볼 것 다 해보고 남은 건 노상단식뿐" - 삼성생명 해고자 85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2면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인권운동
· <주간인권호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제2434호(2003. 10. 15)

/147

- 1면 ·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2면 ·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제2435호(2003. 10. 16)

/149

1면 ·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국제엠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
에 우려 표명
2면 · 극우언론 '송두울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
리 무시
· <만화사랑방> 송두울 흔들기

제2436호(2003. 10. 17)

/151

1면 · 언론노조, 칼바람 속 철야농성 - 노조탄압·임산부에 술 강요 등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 촉구
·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2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학원의 돈벌이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제2437호(2003. 10. 18)

/153

1면 · 어제는 배달호, 오늘은 김주익 -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손배·가압류' 굴레에 목매 자살
· <논평>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2면 ·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 인권단체들, "압수수색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어린이 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제2438호(2003. 10. 21)

/155

1면 ·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
2면 ·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까지 족쇄 -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3면 · 올 가을 완성된 인권영화 4편을 만난다 - 25일 개막되는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 <주간인권호름> (2003년 10월 13일 ~10월 20일)

제2439호(2003. 10. 22)

/158

1면 · '목인 송두울'에 사전구속영장 -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
도 책임"
2면 · "자살사 속출하는데 미국에 돈·목숨까지 대주나" - 330일째 타오른 촛불, '과병반대' 염원 담아

제2440호(2003. 10. 23)

/160

1면 ·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울 삼키다 -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현장> 10일째 맞은 삼성생명 해고자 단식농성장 - "이번에는 길고 긴 투쟁의 끝을 봐야지요"
2면 ·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만화사랑방> 노동자 속박하는 손배 가압류

제2441호(2003. 10. 24)

/162

1면 ·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 "테러방지, 기존체제로도 부족함 없다"
· 열악한 노동현실이 부르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두 달 사이 산재로 5명
사망
2면 ·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 건대생 김용찬 씨도 유죄판결
·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제2442호(2003. 10. 28)

/164

1면 ·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2면 ·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
3면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죽어간 자들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
· <주간인권호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제2443호(2003. 10. 29)

/167

1면 ·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2면 ·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9.22)

제2444호(2003. 10. 30)

/169

1면 ·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 <만화사랑방> 비정규직 전용 식사?
2면 ·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 인권단체들, '수지깎'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열어
· "죽음의 일터를 건강한 노동의 장으로" -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

제2445호(2003. 10. 31)

/171

1면 ·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뒤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
요
2면 · 용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켜 '학생인권' 촛불 - 네이스 반대 촛불문화제, 학생인권 투쟁 현장 찾아가
·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제2446호(2003. 11. 1)

/173

1면 ·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뒤 -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2면 ·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제2447호(2003. 11. 4)

/175

- 1면 ·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 대책위·가족위,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 신부 115인 선언 발표
·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2면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제2448호(2003. 11. 5)

/177

- 1면 · “개념조작 그만하고 파병 철회하라” - 파병반대농성 돌입...국회의원 37명도 “전투병 파병 반대”
- 2면 ·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 3면 ·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선언
- 4면 · ~3면에서 계속

제2449호(2003. 11. 6)

/181

- 1면 ·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
· <만화사랑방> 수능, 그의 미래를 삼키다 - 수능 성적 비판 자살
- 2면 ·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입시제도에 의한 사회적 타살, 이제 멈춰야” - 수능시험 중 여고생 자살한 가운데 수능반대 페스티벌 열려

제2450호(2003. 11. 7)

/183

- 1면 ·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 <클릭! 인권정보자료> 동화 속에서 찾아내는 인권퍼즐 - 『사람답게 아름답게』
- 2면 ·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
·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2451호(2003. 11. 8)

/185

- 1면 · 성실정양원, 기도원 병자 감금·착취 -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 <논평>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 2면 · “전쟁 끝나도 열화우라늄탄의 재앙은 계속된다” - 이라크에서 최고 2200톤 사용...주한미군도 보유 의혹
- 3면 · “정부는 노동자들 절규에 귀 닫지 말라” -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이틀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제2452호(2003. 11. 11)

/188

- 1면 ·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 없이 방치
· “과병 압력 목적 림스펠드 방한 반대한다” - 파병반대국민행동, 미 노골적 과병 압력 강력 규탄
- 2면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3일 ~ 11월 10일)

제2453호(2003. 11. 12)

/190

- 1면 ·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중용 의혹 -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 2면 ·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 자리

제2454호(2003. 11. 13)

/192

- 1면 ·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 본질적 문제점 뇌든 채 부분 땀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만화사랑방> 구원(?)의 발길? -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노동자 탄압
- 2면 ·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 안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

제2455호(2003. 11. 14)

/194

- 1면 ·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함니까” -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 2면 ·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제2456호(2003. 11. 15)

/196

- 1면 ·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 통과
·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2면 ·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사람 모이는 곳이면 평화의 놀이를 - 전국순회 유랑단 ‘평화바람’ 발족

제2457호(2003. 11. 18)

/198

- 1면 ·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감까지 -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발
- 2면 · 3천명 추가 파병, 한미간 큰 틀 합의 - 림스펠드 방한 규탄 그림자 시위 곳곳 이어져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제2458호(2003. 11. 19)

/200

- 1면 · 폐쇄 공간 속 기약없는 감금 - 인권단체들, 은혜기도원 인권유린 현장 확인
- 2면 ·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 “강제 출국 당해도 더 이상 갈곳이 없다” - 이주 노동자들 농성 4일째, 소두무 씨와 라다 씨의 경우

제2459호(2003. 11. 20) /202

- 1면 · 서울 뒤흔든 400만 농민의 분노 - 전국농민대회 10만 참가...농정실패· 개방정책 맹공
· 검찰, “송두울 반성 없다” 끝내 구속기소
- 2면 ·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3면 ·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제2460호(2003. 11. 21) /205

- 1면 ·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클릭! 인권정보자료>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 2면 ·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제2461호(2003. 11. 22) /207

- 1면 · 현역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2면 ·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 모아 지켜내자 -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
·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제2462호(2003. 11. 25) /209

- 1면 ·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주민투표로 ‘단한 부안’ 열자! - 각계 2000인, 경찰력 철수· 주민투표 실시 촉구
- 2면 · <선미의 인권이야기> 거리에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제2463호(2003. 11. 26) /211

- 1면 ·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이용석 씨 분신 한달 맞은 근로복지공단 파업 - 비정규노조 위원장 단식돌입...노동부·공단측 무대책 일관
- 2면 · 무식한 정부·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 불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

제2464호(2003. 11. 27) /213

- 1면 ·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만화사랑방> 21세기의 한국, 19세기의 닳은 풀? - 한국에서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들

2면 ·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정부에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간곡히 호소 - 농성 현역군인 강철민 씨 28일 청와대로 행진

제2465호(2003. 11. 28) /215

- 1면 · 송두울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고발
·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2면 ·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 선포식 열어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지구촌 불평등 거울 - 『불평등한 세계를 바라보는 123가지 방법』

제2466호(2003. 11. 29) /217

- 1면 ·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논평> 죽음과 침묵
- 2면 ·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제2467호(2003. 12. 2) /219

- 1면 ·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 2면 · <이달의 인권> (2003년 11월)
- 3면 ·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4면 ·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2)

제2468호(2003. 12. 3) /223

- 1면 ·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 송두울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져 가로막혀
- 2면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
· 공공문화의 생산기지를 살리자 - 활력연구소, 서울시 재정지원 철회로 폐관 위기

제2469호(2003. 12. 4) /225

- 1면 ·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2면 · 오마이뉴스에 더 이상 기사를 실지 않는 이유 - 기자회견 탈퇴하고 하루소식 기사 제공 중단키로
· <만화사랑방> 전투병 파병과 테러방지법 강행으로 죽음의 늪에 빠져드는 노무현 정권

제2470호(2003. 12. 5) /227

- 1면 ·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 없는 조직 부러 만들어 학생운동 씨 말리나 - 아주대 재학생·졸업생 등 8명, 국보법 조직사건으로 연행
- 2면 ·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비판 -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뀌어야

· <클릭! 인권정보자료> 해외진출기업 감시활동 결산 - 『해외한국기업인권현황 백서』

제2471호(2003. 12. 6)

/229

- 1면 ·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2면 ·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 2명은 불구속...각계 공안탄압 규탄 목소리 확산
-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제2472호(2003. 12. 9)

/231

- 1면 · 이용석 씨 장례식 38일만에 치러 - 비정규직 철폐 뜻 받들고 '전국 노동자장'으로
-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 책임자 고발
- 2면 ·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지하철 단상

제2473호(2003. 12. 10)

/233

- 1면 · 단속추방 잔혹성 도를 넘었다 - 생사 위기도 외면...새벽 기습에 합법체류자도 일단 연행
- "간헐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사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 2면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1)
- 3면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2)
- 4면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3)
- 5면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4)

제2474호(2003. 12. 11)

/238

- 1면 ·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측사에 항의 침묵시위
-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2면 ·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치는 인권 - 최근 국보법 관련 연행·구속자 줄이어
- 침략전쟁 뒤 감춰진 이라크 여성의 경험 - 미군 성폭력 사례도 잇따라
- <만화사랑방>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잔칫상에 차려진 악법들

제2475호(2003. 12. 12)

/240

- 1면 ·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인권·시민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방글라데시 노동자 컨테이너 박스 안 사망 - 이주지부 조합원 자카리아 씨, 마석 성생공단에서
- 2면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제2476호(2003. 12. 13)

/242

- 1면 ·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
-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2면 ·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제2477호(2003. 12. 16)

/244

- 1면 ·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 2면 · <조이어울의 인권이야기> 폭력의 낭만화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제2478호(2003. 12. 17)

/246

- 1면 ·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교정공무원들 반발 거세
- 건대생 김종근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2면 ·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 송두울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학문의 자유 요구
- 혁명은 인권영화제에 나오지 않는다? - 엠네스티 국제영화제,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상영 취소 논란

제2479호(2003. 12. 18)

/248

- 1면 ·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 2면 · <특집> '2003년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 청송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 :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만화사랑방> 정치 풍자가 선거법 위반?

제2480호(2003. 12. 19)

/250

- 1면 ·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뒤
- 2면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벌 지부장
- : "노예의 노동, 이주노동자 스스로 해결해야죠"
-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제2481호(2003. 12. 20)

/252

- 1면 · 추위도 날려버린 반전평화의 바람 - 유랑단 '평화바람' 올해 마지막 공연...파병반대 요구 뜨거워
- <논평>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
- 2면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③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 :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2482호(2003. 12. 23)

/254

- 1면 ·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
- 2면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 <주간인권호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제2483호(2003. 12. 24)

/256

- 1면 · 법무부 정벌·계구 개선안 한계 많다 - 연속징벌·가축수감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 2면 ·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3면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④ - 불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제2484호(2003. 12. 25)

/259

- 1면 ·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2면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 :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제2485호(2003. 12. 27)

/261

- 1면 · <2003년 중간사>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 2면 · 이달의 인권(2003년 12월)
- 3면 · 만화로 보는 2003년 10대 인권 뉴스

호외(2003. 12. 29)

/264

- 1면 · <속보>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권하루소식

2003년 7월

(제2367호 ~ 제2388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2003년 12월 29일(월)

호 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속보>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시법을 사실상 '집회시위 금지법'으로 바꾸는 집시법 개악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오후 5시 35분경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집시법 개악안은 출석의원 191명 중 찬성 136명, 반대 37명, 기권 18명으로 법사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이 집회 제한 사유를 좀더 엄격하게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 임종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찬성 발언을 했으나 출석의원 188명 중 찬성 61명, 반대 121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개악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집회 중 사소한 방어적 폭력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이른바 '폭력시위'라는 구실로 당해 기간의 집회 시위가 금지되고 △주요도로에서는 질서유지인이 배치되는 평화행진도 금지되며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가 금지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도 금지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실상 말살된다. 또 집회 신고를 한 달 전부터만 반도록 해 미리 일정과 장소를 정해야 하는 대규모 집회 준비가 어렵게 됐다. 한편 외국 공관 주변에서는 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집회와 휴일 집회만 가능하게 됐다. 이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도심에서는 집회시위를 하지 말고 사람도 없는 산 속이나 바다 가운데 가서 집회 시위 하란 이야기"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하위법을 과연 지켜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앞으로 집회시위 제한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격화되는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 민주연대, 민변 등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노동단체'들도 긴급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정책이나 국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생존권적 위협을 받고 있는 민중들이, 항상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집회와 시위뿐이었다"며 "반민주, 반인권 독소조항들로 가득 찬 집시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발표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강력한 불복종운동과 함께 "경찰 당국의 침탈에 맞서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내년 국회에서 집시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반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국가인권위 제1소위도 "개악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29일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민변 최병모 회장, 서울대 김진균 명예교수, 불교인권위 진관 대표 등 사회각계 원로·대표들이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이 없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고, 입법논의를 시작한지 단 하루만에 기습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부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21호 색인

색인 찾아보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노동	/266
· 비정규노동	
· 특수고용직	
· 노동권·노동조건	
· 노동건강/직업병	
· 노동조합결성권·교섭·파업권	
· 공무원노조	
· 손배·가압류	
· 노조 탄압 사례 (청구성심병원/전교조/철도노조/삼성)	
생존권/빈곤	/270
사회복지/사회보장	/270
주거권	/270
건강권	/270
교육권	/270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271
고문·가혹행위	/271
· 경찰폭력	
· 군폭력/군의문사	
· 징벌/계구사용	
프라이버시	/272
· 정보기본권	
· 네이스(NEIS) 저지 투쟁	
· 지문날인	
· 테러방지법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274
· 준법서약/사상진향제도	
· 국가보안법	
· 한총련	
· 건대사건	
· 송두율 교수 사건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표현의 자유	/276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277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집시법 개악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277

<소수자>

이주노동자	/278
· 산업연수제/고용허가제	
· 단속절차/외국인보호소	
여성	/279
·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	
· 성매매	
· 호주제/개인별 신분등록제	
어린이·청소년	/280
장애인	/280
· 이동권	
· 장애여성	
성적소수자/동성애자	/281

<국제>

유엔인권기구	/281
국제형사법원(제판소)	/281
지역인권상황	/281
· 아시아	· 북한
· 미국	
· 중동	
· 아프리카	

<특별 주제>

국가기구와 인권	/282
· 국가인권위원회	
· 권고, 구제 결정 관련	
· 인권위원 선임 및 행보	
· 국가정보원	
· 검찰	
시설수용자와 인권	/283
· 정신요양시설	
감옥·유치장 수용자와 인권	/284
· 사회보호법/보호감호제	
신자유주의/세계화	/285
· 농업개방	

· 사영화/ 해외매각	
· 투자협정	
미국과 인권	/286
· 주한미군과 인권	
과거청산/불처벌	/294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 삼청교육대	
· 의문사	
인권교육	/287
평화	/287
· 이라크전쟁과 한국군과병	
· 대인지뢰	
반핵	/289
·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 핵무기	
인권일반	/289
인권단체/인권활동가	/290

<기획/특집>

·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하루소식 고정란>

논평	/292
인권이야기	/292
만화사랑방	/293
클릭! 인권정보자료	/294
인권영화/7회 인권영화제	/294
주간인권흐름	/295
이달의 인권	/295
기타	/295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불한당〉 편집위원) - 정보의 사적 독점에 맞선 '올리브 프 로젝트'(9.19 2면 2418호) /116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죽어간 자들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10.28 3면 2442호) /166
-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 모아 지켜내자 -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11.22 2면 2461호) /208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12.3 2면 2468호) /224
- 공공문화의 생산기지를 살리자 - 활력연구소, 서울시 재정지원 철회로 폐관 위기(12.3 2면 2468호) /224

노동

- <논평> 노동인권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7.5 1면 2371호) /9
- <논평>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8.9 1면 2395호) /61
-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9.6 1면 2413호) /104
-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장 접수...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9.26 1면 2423호) /125
-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10.1 1면 2426호) /131
-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10.30 1면 2444호) /169
-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11.6 1면 2449호) /181
- <논평>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11.8 1면 2451호) /185
- "정부는 노동자들 절규에 귀 닫지 말라" -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이틀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11.8 3면 2451호) /187
-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 없이 방치(11.11 1면 2452호) /188
- <만화사랑방> 구원(?)의 발길? -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노동자 탄압(11.13 1면 2454호) /192
-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11.13 2면 2454호) /193

▷비정규노동

-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특별 기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7.4 1면 2370호) /7
-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 계약 약관에 정의행위 금지 조항 뒤...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7.4 2면 2370호) /8
- <만화사랑방> 파견노동자 '착취'에 관한 법률(7.10 1면 2374호) /16
-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7.22 1면 2381호) /30
-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8.2 2면 2390호) /52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9.6 2면 2413호) /105
-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9.18 2면 2417호) /114

-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9.25 2면 2422호) /124
-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10.2 2면 2427호) /134
- "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무료소개소 폐쇄 중단 촉구(10.8 2면 2429호) /138
-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10.9 2면 2430호) /140
- 열악한 노동현실이 부르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두 달 사이 산재로 5명 사망(10.24 1면 2441호) /162
-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10.28 1면 2442호) /164
- <만화사랑방> 비정규직 전용 식사?(10.30 1면 2444호) /169
-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11.15 2면 2456호) /197
- 이용석 씨 분신 한달 맞은 근로복지공단 파업 - 비정규노조 위원장 단식돌입...노동부·공단측 무대책 일관(11.26 1면 2463호) /211
- <논평> 죽음과 침묵(11.29 1면 2466호) /217
-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저 가로막혀(12.3 1면 2468호) /223
-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비판 -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12.5 2면 2470호) /228
- 이용석 씨 장례식 38일만에 치러 - 비정규직 철폐 뜻 받들고 '전국 노동자장'으로(12.9 1면 2472호) /231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③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12.20 2면 2481호) /253

▷특수고용직

-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 특수고용자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7.19 2면 2380호) /29
- 평화적 생존권 파업, 대화로 풀라 - 50개 사회단체들, 경찰력 투입 철폐·대화 복귀 촉구(8.29 1면 2407호) /86
-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8.29 1면 2407호) /86
- 화물노동자에게 인권도 없나 - 경찰, 폭력연행 가혹 수사에도 업무 복귀각서까지 강요(9.5 1면 2412호) /101
-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11.7 2면 2450호) /184

▷노동권·노동조건

-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뒤(8.19 1면 2399호) /70
- 근로기준법 개악 코 앞(8.21 1면 2400호) /74
- 근로기준법 개악 날벼락 - 본회의 통과...저임·미조직 노동자 노동조건 대폭 후퇴(8.30 1면 2408호) /89
-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10.16 1면 2435호) /149

▷▷노동건강/ 직업병

- "산재 인정도 못받고 4년간 병원 전전" -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7.15 1면 2377호) /22
-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7.25 2면 2384호) /37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① 원진레이온 투쟁 -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8.27 1면 2405호) /82
- "죽음의 일터를 건강한 노동의 장으로" -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10.30 2면 2444호) /170

▷노동조합결성권·교섭·파업권

-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7.15 1면 2377호) /22
-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8.2 1면 2390호) /51
- 평화적 생존권 파업, 대화로 풀라 - 50개 사회단체들, 경찰력 투입 철회·대화 복귀 촉구(8.29 1면 2407호) /86
- "구사대 가담자, 양심선언 뒤 폭행" - 인천 영하운수 노조탄압 심각...전문 노조파괴단까지 고용(9.3 1면 2410호) /96
- 홍국생명 노조 단식투쟁...왜? -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9.4 1면 2411호) /98
- "부당노동행위, 국감에서 철저히 밝혀내라" - 민주택시연맹, 부당노동행위 눈감는 노동부 강력 규탄(9.23 1면 2420호) /119
-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10.7 1면 2428호) /135
- 언론노조, 칼바람 속 철야농성 - 노조탄압·임산부에 술 강요 등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 촉구(10.17 1면 2436호) /151
-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11.27 1면 2464호) /213

▷▷공무원노조

-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8.14 1면 2398호) /67
-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까지 족쇄 -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10.21 2면 2438호) /156

▷▷손배·가압류

-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을 걸 왜 관둬?" -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배 청구(8.5 1면 2391호) /53
- 어제는 배달호, 오늘은 김주익 -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손배·가압류' 굴레에 목매 자살(10.18 1면 2437호) /153
-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10.21 1면 2438호) /155
-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10.22 1면 2439호) /158
- <만화사랑방> 노동자 속박하는 손배 가압류(10.23 2면 2440호) /161

▷▷노조 탄압 사례

▷▷▷청구성심병원

-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7.8 1면 2372호) /11
-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폭행·감시·집단 따돌림의 실상(7.12 2면 2376호) /21
-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7.15 2면 2377호) /23
- <만화사랑방> 신 남량특집 :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7.17 1면 2379호) /26
-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7.23 1면 2382호) /32
-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 특별근로감독 재 실시(7.29 1면 2386호) /40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8.2 1면 2390호) /51
-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다시 시작 - 부당노동행위 확인 집중...이사장 처벌까지 이어질까 주목(8.26 1면 2404호) /80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 인정 - 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9.18 1면 2417호) /113

▷▷▷전교조

- 전교조 간부들 농성돌입(7.2 2면 2368호) /4
-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7.3 2면 2369호) /6
-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7.17 2면 2379호) /27
-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지지 철회 선언(7.19 2면 2380호) /29
-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7.29 2면 2386호) /41
- 교장단과 학사모의 '전교조 탄압' 이증주(7.29 2면 2386호) /41

▷▷▷철도노조

-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 노조원 8천 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7.9 2면 2373호) /14
-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을 계속된다 -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7.26 2면 2385호) /39
-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을 걸 왜 관둬?" -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배 청구(8.5 1면 2391호) /53

▷▷▷삼성

- "산재 인정도 못받고 4년간 병원 전전" -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7.15 1면 2377호) /22
- 삼성생명 현직과장, 산재요양 얻어내 - 구조조정 압박과 모멸감 이유...긴 싸움 끝에 승리 거둬(9.4 2면 2411호) /99
- '무노조 신화' 깨진 삼성, 보복 나섰다 - 삼성플라자, 노조 임원들 협박·감시 일삼아(9.17 2면 2416호) /112
- "해 볼 것 다 해보고 남은 건 노상단식뿐" - 삼성생명 해고자 85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10.14 1면 2433호) /145
- <현장> 10일째 맞은 삼성생명 해고자 단식농성장 - "이번에는 길고 긴 투쟁의 끝을 봐야지요"(10.23 1면 2440호) /145

호)

/160

생존권/빈곤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8.26 2면 2404호) /81
- "자살자 속출하는데 미국에 돈·목숨까지 대주나" - 330일째 타오른 촛불, '파병반대' 엄원 담(10.22 2면 2439호) /159
- <선미의 인권이야기> 거리에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11.25 1면 2462호) /209

사회복지/사회보장

-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8.20 1면 2400호) /72
-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9.24 2면 2421호) /122
-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11.25 1면 2462호) /209
-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12.2 1면 2467호) /219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 :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12.25 2면 2484호) /260

주거권

- "사는 사람 내쫓고 주거환경개선이라뇨?" - 대전 용두동 철거민 길거리 농성 400일째 맞아(8.23 2면 2403호) /79
- 용두동 철거민 시청과 합의 - 저소득층 살 곳은 없어(9.4 2면 2411호) /99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11.11 2면 2452호) /189
-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12.13 1면 2476호) /242

건강권

-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7.23 1면 2382호) /32
- <만화사랑방> 환자부담 외면하는 '참여복지'(7.24 2면 2383호) /35
-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9.6 1면 2413호) /104
- "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무료소개소 폐쇄 중단 촉구(10.8 2면 2429호) /138
-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11.15 2면 2456호) /197
-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12.6 1면 2471호) /229
- "간헐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 국가인권위, 구급시설 사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12.10 1면 2473호) /233

교육권

-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10.8 1면 2429호)

/137

· <만화사랑방> 공교육 짓밟는 교육개방 특별법(10.9 2면 2430호)

/140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뒤(12.19 1면 2480호) /250

고문·가혹행위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등장 - 뿌리뽑아야 할 범죄, 고문 (9.4 3면 2411호) /100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12.12 2면 2475호) /241

▷경찰폭력

-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해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10.15 1면 2434호) /147
-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10.29 2면 2443호) /168
-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10.31 1면 2445호) /171
-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 없이 방치(11.11 1면 2452호) /188
-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 안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11.13 2면 2454호) /193
-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책임자 고발(12.9 1면 2472호) /231

▷군폭력/ 군의문사

-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7.12 1면 2376호) /20
- 전·의경 구타 사망, "국가에서 책임져야" - 유가족 및 인권단체 경찰청 항의, 인권위에 대책 마련 촉구(7.17 2면 2379호) /27
- <김철준의 인권이야기>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7.22 2면 2381호) /31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 문사 진실찾기(9.3 2면 2410호) /97

▷징벌/ 계구 사용

-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7.9 2면 2373호) /14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7.24 2면 2383호) /35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 0.9평 징벌방에 1년 내내 갇혀 있기도(7.31 2면 2388호) /47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8.7 2면 2393호) /58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8.14 2면 2398호) /68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끝> -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8.21 2면 2400호) /75
-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12.19 1면 2480호) /250
-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 많다 -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12.24 1면 2483호) /256

프라이버시

-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장 접수...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9.26 1면 2423호) /125
-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10.11 2면 2432호) /144
-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 인권단체들, “압수수색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10.18 2면 2437호) /154
-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12.13 2면 2476호) /243

▷정보기본권

-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8.20 2면 2400호) /73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정보인권 등한시 한계(8.23 1면 2403호) /78
-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 정보인권단체들, 행사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9.16 1면 2415호) /109
-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불한당〉 편집위원) - 정보의 사적 독점에 맞선 ‘올리브 프로젝트’(9.19 2면 2418호) /116
-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도 확장 의혹(9.20 1면 2419호) /117

▷▷네이스(NEIS) 저지 투쟁

- 전교조 간부들 농성돌입(7.2 2면 2368호) /4
-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7.3 2면 2369호) /6
-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7.9 1면 2373호) /13
- ‘교육청, 네이스 선택 중용’ 증거 드러나 -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7.9 1면 2373호) /13

-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7.17 2면 2379호) /27
-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7.19 1면 2380호) /28
-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지지 철회 선언(7.19 2면 2380호) /29
-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김재홍(서울 기고 교사) -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7.30 3면 2387호) /45
-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8.8 2면 2394호) /60
-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닷 올랐다 - 장대빛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8.28 1면 2406호) /84
- 네이스 공대위, 교육정보위 참여키로 - “내·외곽에서 네이스 반대운동 함께 펼칠 터”(9.9 1면 2414호) /107
-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10.10 1면 2431호) /141
- 용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권 ‘학생인권’ 촛불 - 네이스 반대 촛불문화제, 학생인권 투쟁 현장 찾아가(10.31 2면 2445호) /172
-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11.29 1면 2466호) /217
-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12.16 1면 2477호) /244

▷지문날인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 없다”?(7.23 2면 2382호) /33
-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12.25 1면 2484호) /259

▷테러방지법

-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8.23 1면 2403호) /78
-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9.19 1면 2418호) /115
- <논평> 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9.20 1면 2419호) /117
-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9.27 1면 2424호) /127
-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10.1 1면 2426호) /131
- <만화사랑방> 웃는 얼굴 다정해도... : 테러방지법 추진하는 국정원의 속내(10.2 2면 2427호) /134
-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10.15 2면 2434호) /148
-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10.16 1면 2435호) /149
-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10.17 1면 2436호) /151
-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10.21 2면 2438호) /156
-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10.23 2면 2440호) /161
-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 “테러방지, 기존체제로도 부족함 없다”(10.24 1면 2441호) /162
-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10.28 2면 2442호) /162

호)	/165
·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10.29 1면 2443호)	/167
·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9.22)(10.29 2면 2443호)	/168
·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10.31 2면 2445호)	/172
·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11.4 1면 2447호)	/175
·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11.5 2면 2448호)	/178
·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선언(11.5 3-4면 2448호)	/179-180
·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뺄기...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11.13 1면 2454호)	/192
·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11.14 2면 2455호)	/195
·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 통과(11.15 1면 2456호)	/196
·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11.20 3면 2459호)	/204
·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11.21 2면 2460호)	/206
·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 선포식 열어(11.28 2면 2465호)	/216
· <만화사랑방> 전투병 파병과 테러방지법 강행으로 죽음의 늪에 빠져드는 노무현 정권(12.4 2면 2469호)	/226
·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12.5 1면 2470호)	/227
·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12.11 1면 2474호)	/238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서>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7.9 3면 2373호)	/15
· 장기수들의 미세한 삶의 결 그렸다 - 김동원 감독의 <송환>, 장기수들과의 10년 인연 담아(10.11 2면 2432호)	/144
·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12.24 2면 2483호)	/257

▷준법서약/사상전향제도

·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10.15 1면 2434호)	/147
·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10.16 2면 2435호)	/150
·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 "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11.6 2면 2449호)	/182

▷국가보안법

· "게시물 삭제 요구는 공안탄압" - 민주노총,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운영 재개(7.25 1면 2384호)	/36
·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7.26 1면 2385호)	/38
· <특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8.1 1면 2389호)	/49
· <특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8.2 2면 2390호)	/52
· <특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끝> - 전 국민을 알아서 기계 만든다(8.7 1면 2393호)	/57
·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 귀국보장·명예회복 추진위 출범... '반성문' 강요 중단 촉구(8.8 1면 2394호)	/59
·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8.8 2면 2394호)	/60
·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육인동분실로 연행돼(12.2 1면 2467호)	/219
· 없는 조직 부러 만들어 학생운동 씨 말리나 - 아주대 재학생·졸업생 등 8명, 국보법 조직사건으로 연행(12.5 1면 2470호)	/227
·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 2명은 불구속...각계 공안탄압 규탄 목소리 확산(12.6 2면 2471호)	/230
·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치는 인권 - 최근 국보법 관련 연행·구속자 줄이어(12.11 2면 2474호)	/239

▷▷한총련

·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줄 시위(7.22 1면 2381호)	/30
·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7.24 1면 2383호)	/34
·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 인권단체들,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비판(7.26 1면 2385호)	/38
·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7.30 1면 2387호)	/43
·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 수배해제모임 유영업 대표...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8.21 1면 2400호)	/74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 공포의 이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8.30 2면 2408호)	/90
·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10.15 1면 2434호)	/147

▷▷건대 사건

·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 건대생 2명 구속... <자본론> 까지 이적표현물 지목(7.19 1면 2380호)	/28
·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옳아(8.13 1면 2397호)	/65
·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8.22 2면 2401호)	/77
·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9.26 2면 2423호)	/126
· 건대생 김종근 씨, 징역 2년 선고 - 국보법으로 얹어매고 다른 죄로 마무리?(9.27 1면 2424호)	/127

-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 건대생 김용찬 씨도 유죄판결(10.24 2면 2441호) /163
-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12.17 1면 2478호) /246

▷▷ 송두율 교수 사건

-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10.10 1면 2431호) /141
-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10.11 1면 2432호) /143
- "전향 강요· 사법처리 중단하라" -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10.15 1면 2434호) /147
-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10.16 2면 2435호) /150
- <만화사랑방> 송두율 흔들기(10.16 2면 2435호) /150
- '묵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10.22 1면 2439호) /158
-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10.23 1면 2440호) /160
-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 "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11.6 2면 2449호) /182
-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11.14 2면 2455호) /195
- 검찰, "송두율 반성 없다" 끝내 구속기소(11.20 1면 2459호) /202
-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고발(11.28 1면 2465호) /215
-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12.3 1면 2468호) /223
-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학문의 자유 요구(12.17 2면 2478호) /247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아웃사이드」 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 이어(7.2 2면 2368호) /4
-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9.27 2면 2424호) /128

표현의 자유

- 혁명은 인권영화제에 나오지 않는다? - 엠네스티 국제영화제,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상영 취소 논란(12.17 2면 2478호) /247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 "게시물 삭제 요구는 공안탄압" - 민주노총,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운영 재개(7.25 1면 2384호) /36
-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7.26 1면 2385호) /38
-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9.3 1면 2410호) /96
-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12.18 1면 2479호)

- <만화사랑방> 정치 풍자가 선거법 위반?(12.18 2면 2479호) /249

집회·결사의 자유

▷ 집회·시위의 자유

-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7.25 2면 2384호) /37
-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8.27 2면 2405호) /83
- "어린이 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10.18 2면 2437호) /154
-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 현재, "예외적 허용 규정 뒤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10.31 1면 2445호) /171
-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영역' -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11.5 2면 2448호) /178
-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중용 의혹 -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11.12 1면 2453호) /190

▷▷ 집시법 개악

-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11.20 2면 2459호) /203
-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11.20 2면 2459호) /203
-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11.21 2면 2460호) /206
-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11.27 2면 2464호) /214
-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 선포식 열어(11.28 2면 2465호) /216
-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11.29 2면 2466호) /218
-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12.9 2면 2472호) /232
-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12.11 1면 2474호) /238
-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인권·시민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12.12 1면 2475호) /240
-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12.16 1면 2477호) /244
-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12.18 1면 2479호) /248
-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12.19 2면 2480호) /251
- <속보>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1면 호외) /264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7.31 1면 2388호) /46
-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8.30 1면 2408호) /89

- 주민투표로 '달한 부안' 열자! - 각계 2000인, 경찰력 철수·주민투표 실시 촉구(11.25 1면 2462호) /209
- 무식한 정부·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 부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11.26 2면 2463호) /212

소수자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정보인권 등한시 한계(8.23 1면 2403호) /78

이주노동자

-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7.2 1면 2368호) /3
- <만화사랑방> 오호통재! 장화홍련 - 정부와 기업에 착취당하는 한국노동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7.3 1면 2369호) /5
- 이주노동자의 삶과 동행한 네 편의 영화 - 인권영화제 제작 지원 작품 <여정> 배급 앞뒤(7.5 2면 2371호) /10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7.10 2면 2374호) /17
-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8.14 3면 2398호) /69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8.29 2면 2407호) /87
-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김기연(민변 활동가) - 부족한 이해가 낳은 미흡한 권고, 한국정부에 책임있다(8.29 3면 2407호) /88
-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 옷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10.14 1면 2433호)/145
- 국제엠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10.16 1면 2435호) /149
-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11.1 1면 2446호) /173
-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뺄기...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11.13 1면 2454호) /192
- <만화사랑방> 21세기의 한국, 19세기의 님은 꼴? - 한국에서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들(11.27 1면 2464호) /213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온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멜 지부장 : "노예의 노동, 이주노동자 스스로 해결해야"(12.19 2면 2480호) /251

▷산업연수제/고용허가제

-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7.16 1면 2378호) /24
- "빠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7.29 1면 2386호) /40
-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10.2 1면 2427호) /133
-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뒤 -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11.1 1면 2446호) /173
-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함니까" -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11.14 1면 2455호) /194
-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11.15 1면 2456호) /196

- "강제 출국 당해도 더 이상 갈곳이 없다" - 이주 노동자들 농성 4일째, 소두무 씨와 라다 씨의 경우(11.19 2면 2458호) /201
- 방글라데시 노동자 컨테이너 박스 안 사망 - 이주지부 조합원 자카리아 씨, 마석 성생공단에서(12.12 1면 2475호) /240

▷단속절차/외국인보호소

-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9.30 1면 2425호) /129
-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10.29 2면 2443호) /168
-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11.7 2면 2450호) /184
-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감까지 -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11.18 1면 2457호) /198
-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감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11.21 1면 2460호) /205
- 단속추방 잔혹성 도를 넘었다 - 생사 위기도 외면...새벽 기습에 합법체류자도 일단 연행(12.10 1면 2473호)/233

여성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지하철 단상(12.9 2면 2472호) /232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

- 언론노조, 칼바람 속 철야농성 - 노조탄압·임산부에 술 강요 등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 촉구(10.17 1면 2436호) /151
- 침략전쟁 뒤 감춰진 이라크 여성의 경험 - 미군 성폭력 사례도 잇따라(12.11 2면 2474호) /239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폭력의 낭만화(12.16 2면 2477호) /245

▷성매매

-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7.2 2368호 2면) /4
-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 피해여성 치료와 재활 지원센터, 인적·물적 토대 미흡(7.10 2면 2374호) /17
- '정치적 음모' 아닌 '성매매' 문제다 - 양길승 실장 파문, 정상남·접대문화 반성 계기 돼야(8.9 2면 2395호) /62
-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발족...긴급전화 개설(8.28 1면 2406호) /84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제참사 <끝> -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9.9 2면 2414호) /108

▷호주제/개인별 신분등록제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정보인권 등한시 한계(8.23 1면 2403호) /78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9.16 2면 2415호) /110

·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9.27 2면 2424호) /128

어린이 · 청소년

-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7.3 1면 2369호) /5
-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협" 헌법소원(8.5 1면 2391호) /53
- <만화사랑방> 젊은 게 죄나? : 18세 선거권 시행하라(8.7 1면 2393호) /57
- <선미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8.19 2면 2399호) /71
- 반핵투쟁 주체로 나선 부안의 학생들 - 부안 초중고생 등교거부 속속...반핵 청소년모임도 결성 준비(8.27 2면 2405호) /83
- <선미의 인권이야기> '미래의 주역'과 오늘의 고통(9.23 2면 2420호) /120
-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9.24 2면 2421호) /122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학원의 돈벌이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10.17 2면 2436호) /152
- "어린이 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10.18 2면 2437호) /154
- 용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권 '학생인권' 촛불 - 네이스 반대 촛불문화제, 학생인권 투쟁 현장 찾아가(10.31 2면 2445호) /172
- <만화사랑방> 수능, 그의 미래를 삼키다 - 수능 성적 비판 자살(11.6 1면 2449호) /181
- "입시제도에 의한 사회적 타살, 이제 멈춰야" - 수능시험 중 여고생 자살한 가운데 수능반대 페스티벌 열려(11.6 2면 2449호) /182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12.12 2면 2475호) /241

장애인

-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7.16 1면 2378호) /24
-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12.4 1면 2469호) /225

▷이동권

-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7.24 1면 2383호) /34
-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8.21 2면 2400호) /75
- "선로 점거, 고심 끝 마지막 호소였다" -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구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8.23 2면 2403호) /79
-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9.26 2면 2423호) /126

▷장애여성

-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장애여성에게 절박한 쉼터(7.29 3면 2386호) /42
-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발족...긴급전화 개설(8.28 1면 2406호) /84
-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10.18 2면 2437호) /154

성적소수자/동성애자

-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애도 표명'마저 거절 - 동성애자 인권문제 꺼안는 교회 변화 절실(7.23 2면 2382호) /33
- 성적소수자 지원센터 문열어 - 관련 DB구축·전문 연구활동으로 정책 대안 생산(8.7 2면 2393호) /58
-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9.3 1면 2410호) /96

국제

유엔인권기구

-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8.14 3면 2398호) /69
-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김기연(민변 활동가) - 부족한 이해가 낳은 미흡한 권고, 한국정부에 책임있다(8.29 3면 2407호) /88
-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11.5 2면 2448호) /178
-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선언(11.5 3-4면 2448호) /179-180

국제형사법원(재판소)

- "미국과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국 강요 거부 촉구(7.2 1면 2368호) /3
-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7.26 2면 2385호) /39

지역인권상황

▷아시아

- 제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9.18 1면 2417호) /113
-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책거 -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10.14 1면 2433호)/145
-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11.7 2면 2450호) /184

▷▷북한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9.2 2면 2409호) /94

▷미국

·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11.7 1면 2450호) /183

▷중동

·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10.9 1면 2430호) /139
· 침략전쟁 뒤 감춰진 이라크 여성의 경험 - 미군 성폭력 사례도 잇따라(12.11 2면 2474호) /239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12.12 2면 2475호) /241

▷아프리카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아프리카, 약탈경제와 전쟁의 악순환(8.5 2면 2391호) /54

특별주제

국가기구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8.20 2면 2400호) /73
·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10.29 1면 2443호) /167
·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12.13 2면 2476호) /243
·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교정공무원들 반발 거세(12.17 1면 2478호) /246
·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12.23 1면 2482호) /254

▷▷권고, 구제 결정 관련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7.10 2면 2374호) /17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 없다"(7.23 2면 2382호) /33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7.30 2면 2387호) /44
·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쐈기(9.24 1면 2421호) /121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10.10 2면 2431호) /142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10.17 2면 2436호) /152
·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 "테러방지, 기존체계로도 부족함 없다"(10.24 1면 2441호) /162

·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 관련자 8명 수사외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10.31 1면 2445호) /171

▷▷인권위원 선임 및 행보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입 인권위원 김만홍 교수를 찾아 - 준비된 자세 미흡...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8.13 2면 2397호) /66

▷국가정보원

·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8.23 1면 2403호) /78
·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9.19 1면 2418호) /115
·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9.27 1면 2424호) /127
·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10.1 1면 2426호) /131
· 국제엠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10.16 1면 2435호) /149
·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10.23 2면 2440호)/161
·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10.31 2면 2445호) /172
·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11.1 1면 2446호) /173
·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 대책위·가족위,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 신부 115인 선언 발표(11.4 1면 2447호) /175
·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11.14 2면 2455호) /195

▷검찰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7.16 2면 2378호) /25
·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 "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11.6 2면 2449호) /182
·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11.14 2면 2455호) /195

시설수용자와 인권

·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7.11 1면 2375호) /18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9.2 3면 2409호) /95
·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 엮어(11.22 2면 2461호) /208

▷정신요양시설

· 성실정양원, 기도원 병자 감금·착취 -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11.8 1면 2451호)

호)	/185
· 폐쇄 공간 속 기약없는 감금 - 인권단체들, 은혜기도원 인권유린 현장 확인(11.19 1면 2458호)	/200
·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11.28 1면 2465호)	/215

감옥·유치장 수용자와 인권

·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7.9 2면 2373호)	/14
·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7.12 1면 2376호)	/20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7.24 2면 2383호)	/35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 0.9평 징벌방에 1년 내내 갇혀 있기도(7.31 2면 2388호)	/47
·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8.6 2면 2392호)	/56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8.7 2면 2393호)	/58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 법무부는 성금, 되레 인권위는 뒷전(8.14 2면 2398호)	/68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끝> -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8.21 2면 2400호)	/75
·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쫓겨(9.24 1면 2421호)	/121
· “갈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사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12.10 1면 2473호)	/233
·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교정공무원들 반발 거세(12.17 1면 2478호)	/246
·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 현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12.19 1면 2480호)	/250
·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 많다 -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12.24 1면 2483호)	/256

▷사회보호법/ 보호감호제

·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9.18 2면 2417호)	/114
·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9.20 2면 2419호)	/118
·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9.23 1면 2420호)	/119
· <만화사랑방> 처벌 따블! : 이중처벌 사회보호법(9.25 2면 2422호)	/124
· 또다시 벗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 강모 씨 사망경위 배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10.7 1면 2428호)	/135
·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12.6 2면 2471호)	/230
· <특집> ‘2003년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 청송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12.18 2면 2479호)	/249

·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12.23 1면 2482호)	/254
--	------

신자유주의/세계화

· 영화로 돌아온 99년 시인들의 합성 - 반세계화의 상징 담은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어들 투쟁>(8.9 2면 2395호)	/62
· “자본의 탐욕 막으려 칸쿤으로” -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9.2 1면 2409호)	/93
·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10.8 1면 2429호)	/137
·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10.9 1면 2430호)	/139
· <만화사랑방> 공교육 짓밟는 교육개방 특별법(10.9 2면 2430호)	/140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10.10 2면 2431호)	/142
·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11.7 2면 2450호)	/184
·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11.12 2면 2453호)	/191
·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 모아 지켜내자 -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11.22 2면 2461호)	/208

▷농업개방

· 농심 쪼른 칸쿤회의 결국 결렬 - 최종선언문 도출 실패...이경해 씨 유해 18일 도착(9.16 1면 2415호)	/109
· 이경해 씨 추모 촛불, ‘농민 생존권 사수’ 햇불로! - 광화문 네거리서 고 이경해 씨 추모대회 열려(9.20 2면 2419호)	/118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비아 캠페시나’가 열어가길(9.30 2면 2425호)	/130
· 서울 뒤흔든 400만 농민의 분노 - 전국농민대회 10만 참가...농정실패·개방정책 맹공(11.20 1면 2459호)	/202
· 오마이뉴스에 더 이상 기사를 신지 않는 이유 - 기자회견 탈퇴하고 하루소식 기사 제공 중단키로(12.4 2면 2469호)	/226

▷사영화/ 해외매각

·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 노동자들, 졸속 입법·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7.1 1면 2367호)	/1
· 철도 공공성과 4·22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7.1 1면 2367호)	/1
·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 노조원 8천 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7.9 2면 2373호)	/14
·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을 계속된다 -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7.26 2면 2385호)	/39
·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8.19 1면 2399호)/70	

▷투자협정

· “초국적 자본의 권리현장은 가라” -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닷 올려(7.8 1면 2372호)	/11
---	-----

·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7.10 1면 2374호) /16

미국과 인권

· <열번째 반딧불> “미국의 테러가 전세계 테러 부른다” - 촛스키의 미 군사패권주의 비판, <파워 앤 테러>(8.22 2면 2401호) /77
· 침략전쟁 뒤 감춰진 이라크 여성의 경험 - 미군 성폭력 사례도 잇따라(12.11 2면 2474호) /239

▷주한미군과 인권

·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 한미동맹관계 조정·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7.11 2면 2375호) /19
·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8.9 1면 2395호) /61
·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8.12 1면 2396호) /63
· <만화사랑방> 평화시위가 폭력적이라고?(8.14 1면 2398호) /67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매항리 폭격장 폐쇄 투쟁 - 고통의 땅 매항리는 아직도 “뚜두뚜두-쿵”(9.5 3면 2412호) /103
·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 스트라이커 시위 관련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9.9 1면 2414호) /107
·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10.8 1면 2429호) /137
· 스트라이커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10.11 1면 2432호) /143
· “자살자 속출하는데 미국에 돈·목숨까지 대주나” - 330일째 타오른 촛불, ‘파병반대’ 염원 담아(10.22 2면 2439호) /159

과거청산/불처벌

· 안기부 엠티를 ‘기억의 공간’으로 -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7.30 1면 2387호) /43
· <만화사랑방> 안기부 엠티를 유스호스텔로?(7.31 1면 2388호) /46
·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8.6 1면 2392호) /55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영혼의 집’을 꿈꾸며(8.12 2면 2396호) /64
·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8.13 1면 2397호) /65
·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8.20 1면 2400호) /72
· <만화사랑방> 장세동까지 마저 잡읍시다!(8.21 1면 2400호) /74
· 아픔의 현장에 ‘인권의 집’ 짓자 - 인권단체들, 남산 안기부 엠티 보존 대책기구 결성키로(8.26 1면 2404호) /80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 빚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8.28 2면 2406호) /85
·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 인권단체들, ‘수지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열어(10.30 2면 2444호) /170
·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 대책위·가족위,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 신부 115인 선언 발표(11.4 1면 2447호) /175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학살

·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7.17 1면 2379호) /26
·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12.13 2면 2476호) /243

▷삼청교육대

·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목시록 - 삼청교육(7.8 2면 2372호) /12
·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12.23 1면 2482호) /254

▷의문사

·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7.3 2면 2369호) /6
·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10.29 1면 2443호) /167

인권교육

· “인권은 머리가 아닌 생활로 깨닫는 것” - 8월 11~13일, 어린이 인권캠프 개최(7.16 2면 2378호) /25
· “평화전염병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는 어린이 인권캠프(8.14 2면 2398호) /68

평화

·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7.5 1면 2371호) /9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아프리카, 약탈경제와 전쟁의 악순환(8.5 2면 2391호) /54
·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8.12 1면 2396호) /63
· <만화사랑방> 평화시위가 폭력적이라고?(8.14 1면 2398호) /67
· <열번째 반딧불> “미국의 테러가 전세계 테러 부른다” - 촛스키의 미 군사패권주의 비판, <파워 앤 테러>(8.22 2면 2401호) /77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9.2 2면 2409호) /94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매항리 폭격장 폐쇄 투쟁 - 고통의 땅 매항리는 아직도 “뚜두뚜두-쿵”(9.5 3면 2412호) /103
· “평화 불복종, 국민이 변호한다” - 스트라이커 시위 관련 구속자 24명…국민변호인단 결성(9.9 1면 2414호) /107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10.7 2면 2428호) /136
· 스트라이커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10.11 1면 2432호) /143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11.4 2면 2447호) /176
·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11.5 2면 2448호) /178
·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11.7 1면 2450호) /183
· 사람 모이는 곳이면 평화의 놀이를 - 전국순회 유랑단 ‘평화바람’ 발족(11.15 2면 2456호) /197

· 추위도 날려버린 반전평화의 바람 - 유랑단 '평화바람' 올해 마지막 공연...파병반대 요구 뜨거워(12.20 1면 2481호) /252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 미군 4500명은 왜 후송되었을까 - 6천명 후송자 중 75%는 이유 의문...열화우라늄탄등 원인 지목(9.17 1면 2416호) /111

·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거늘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9.17 1면 2416호) /111

· <만화사랑방> "내 대신 목숨 바쳐 싸워줘!" : 한국군 파병(9.18 1면 2417호) /113

· <논평> 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9.20 1면 2419호) /117

·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 351개 사회단체 '비상국민행동' 결성...27일 국제반전집회도(9.24 1면 2421호) /121

·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민간인 학살" - 이라크 파견 평화활동가·의료진 공동 기자회견 열어(9.25 1면 2422호) /123

·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10.9 1면 2430호) /139

· <논평>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10.18 1면 2437호) /153

· "자살자 속출하는데 미국에 돈·목숨까지 대주나" - 330일째 타오른 촛불, '파병반대' 염원 담아(10.22 2면 2439호) /159

· "개념조작 그만하고 파병 철회하라" - 파병반대농성 돌입...국회의원 37명도 "전투병 파병 반대"(11.5 1면 2448호) /177

· "파병 압력 목적 럼스펠드 방한 반대한다" - 파병반대국민행동, 미 노골적 파병 압력 강력 규탄(11.11 1면 2452호) /188

· 3천명 추가 파병, 한미간 큰 틀 합의 - 럼스펠드 방한 규탄 그림자 시위 곳곳 이어져(11.18 2면 2457호) /199

· 현역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11.22 1면 2461호) /207

· 정부에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간곡히 호소 - 농성 현역군인 강철민 씨 28일 청와대로 행진(11.27 2면 2464호) /214

·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11.29 2면 2466호) /218

· <만화사랑방> 전투병 파병과 테러방지법 강행으로 죽음의 늪에 빠져드는 노무현 정권(12.4 2면 2469호) /226

·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12.5 1면 2470호) /227

· 침략전쟁 뒤 감춰진 이라크 여성의 경험 - 미군 성폭력 사례도 잇따라(12.11 2면 2474호) /239

· <논평>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12.20 1면 2481호) /252

·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12.24 1면 2483호) /256

▷대인지뢰

·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7.5 2면 2371호)/10

·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9.5 2면 2412호) /102

· 국방부, 대인지뢰 추가 도입한다 - 내년 예산 59억원 추가 책정...한국형 지뢰살포기도 개발(9.17 2면 2416호)

/112
/211

반핵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7.31 1면 2388호) /46

· 반핵투쟁, 부안 넘어 전국으로 - 환경사회단체들, 핵폐기장 선정 철회 비상대책위 발족(8.22 1면 2401호) /76

· 반핵투쟁 주체로 나선 부안의 학생들 - 부안 초중고생 등교거부 속속...반핵 청소년모임도 결성 채비(8.27 2면 2405호) /83

·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8.30 1면 2408호) /89

· <만화사랑방> 다윗과 골리앗 : 노무현의 개발독재(9.4 1면 2411호) /98

·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9.30 1면 2425호) /129

· 주민투표로 '단힌 부안' 열자! - 각계 2000인, 경찰력 철수·주민투표 실시 촉구(11.25 1면 2462호) /209

· 무식한 정부·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 부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11.26 2면 2463호) /212

·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책임자 고발(12.9 1면 2472호) /231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④ -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 나지 않았어요"(12.24 3면 2483호) /258

▷핵무기

·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8.6 1면 2392호) /55

· 방사능 피해 유전, 드러나는 증거들(8.6 1면 2392호) /55

· 미군 4500명은 왜 후송되었을까 - 6천명 후송자 중 75%는 이유 의문...열화우라늄탄등 원인 지목(9.17 1면 2416호) /111

· "전쟁 끝나도 열화우라늄탄의 재앙은 계속된다" - 이라크에서 최고 2200톤 사용...주한미군도 보유 의혹(11.8 2면 2451호) /186

인권일반

·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11.12 1면 2453호) /190

·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엿박자(11.19 2면 2458호) /201

·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11.22 1면 2461호) /207

·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12.6 1면 2471호) /229

·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추사에 항의 침묵시위(12.11 1면 2474호) /238

· <만화사랑방>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잔칫상에 차려진 악법들(12.11 2면 2474호) /239

·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12.13 1면 2476호)	/242
·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12.16 1면 2477호)	/244
·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12.18 1면 2479호)	/248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12.23 2면 2482호)	/255
·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12.25 1면 2484호)	/259
· <2003년 종간사>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12.27 1면 2485호)	/261
· 만화로 보는 2003년 10대 인권 뉴스(12.27 3면 2485호)	/263

인권단체/ 인권활동가

· "10년의 무게 던져버리고 낮은 곳으로" -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열려(9.2 1면 2409호)	/93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을 맞아> 10년의 새벽을 다시 깨운다(9.6 3면 2413호)	/106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인권운동(10.14 2면 2433호)	/146
·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10.28 2면 2442호)	/165

기획/특집

▷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7.24 2면 2383호)	/35
· ② 0.9평 징벌방에 1년 내내 갇혀 있기도(7.31 2면 2388호)	/47
· ③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8.7 2면 2393호)	/58
·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8.14 2면 2398호)	/68
·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8.21 2면 2400호)	/75

▷ '진보의권'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8.1 1면 2389호)	/49
·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8.2 2면 2390호)	/52
·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계 만든다(8.7 1면 2393호)	/57

▷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 ① 원진레이온 투쟁 -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8.27 1면 2405호)	/82
· ② 5·18 특별법 제정 -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8.28 2면 2406호)	/85
·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쇄사슬 농성 - '현대판 노예'들의 쇄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8.29 2면 2407호)	/87
· ④ 96년 연세대 사태 - 공포의 이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8.30 2면 2408호)	/90
·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9.2 3면 2409호)	/95

· ⑥ 김훈 중위 사건 - JSA를 올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9.3 2면 2410호)	/97
·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등장 - 뿌리뽑아야 할 범죄, 고문(9.4 3면 2411호)	/100
· ⑧ 매항리 폭격장 폐쇄 투쟁 - 고통의 땅 매항리는 아직도 "뚜두뚜두-쿵"(9.5 3면 2412호)	/103
· ⑨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9.6 2면 2413호)	/105
·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제참사 <끝> -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9.9 2면 2414호)	/108

▷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9.18 2면 2417호)	/114
·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9.25 2면 2422호)	/124
· ③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10.2 2면 2427호)	/134
· ④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10.9 2면 2430호)	/140

▷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10.15 2면 2434호)	/148
·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10.17 1면 2436호)	/151
·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10.23 2면 2440호)	/161
· ④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10.28 2면 2442호)	/165

▷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 ① 청송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12.18 2면 2479호)	/249
· ②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벌 지부장 : "노예의 노동, 이주노동자 스스로 해결해야죠"(12.19 2면 2480호)	/251
· ③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12.20 2면 2481호)	/253
· ④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12.24 3면 2483호)	/258
· ⑤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 :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12.25 2면 2484호)	/260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7.10 2면 2374호)	/17
·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7.16 2면 2378호)	/25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 없다"?(7.23 2면 2382호)	/33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7.30 2면 2387호)	/44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 준비된 자세 미흡...반년 넘은 공식, 졸속 인신 결과(8.13 2면 2397호)	/66
·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10.10 2면 2431호)	/142
·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10.17 2면 2436호)	/152

인권하루소식 고정란과 기타

논평

· 노동인권예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7.5 1면 2371호)	/9
·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7.12 1면 2376호)	/20
·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7.19 1면 2380호)	/28
· '김일성 계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7.26 1면 2385호)	/38
·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8.2 1면 2390호)	/51
·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8.9 1면 2395호)	/61
·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8.23 1면 2403호)	/78
·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8.30 1면 2408호)	/89
· 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9.20 1면 2419호)	/117
·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9.27 1면 2424호)	/127
· 송두울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10.11 1면 2432호)	/143
·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10.18 1면 2437호)	/153
· 역시 무서운 국정원(11.1 1면 2446호)	/173
·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11.8 1면 2451호)	/185
· 압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11.15 1면 2456호)	/196
·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11.22 1면 2461호)	/207
· 죽음과 침묵(11.29 1면 2466호)	/217
·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12.6 1면 2471호)	/229
·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12.13 1면 2476호)	/242
·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12.20 1면 2481호)	/252

인권이야기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 지옥의 목시록 - 삼청교육(7.8 2면 2372호)	/12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7.15 2면 2377호)	/23
▷김철준의 인권이야기	
·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7.22 2면 2381호)	/31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 장애여성에게 절박한 쉼터(7.29 3면 2386호)	/42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아프리카, 약탈경제와 전쟁의 악순환(8.5 2면 2391호)	/54
·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9.2 2면 2409호)	/94
·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11.4 2면 2447호)	/176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 '영혼의 집'을 꿈꾸며(8.12 2면 2396호)	/64
·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인권운동(10.14 2면 2433호)	/146
· '남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11.11 2면 2452호)	/189

▷선미의 인권이야기

·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8.19 2면 2399호)	/71
· '미래의 주역'과 오늘의 고통(9.23 2면 2420호)	/120
· 거리에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11.25 2면 2462호)	/210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8.26 2면 2404호)	/81
· '비아 캠페시나'가 열어가길(9.30 2면 2425호)	/130
· 죽어간 자들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10.28 3면 2442호)	/166
·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12.3 2면 2468호)	/224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지하철 단상(12.9 2면 2472호)	/232
-------------------------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 폭력의 낭만화(12.16 2면 2477호)	/245
---------------------------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12.23 2면 2482호)	/255
----------------------------------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 오호통제! 장화홍련 - 정부와 기업에 착취당하는 한국노동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7.3 1면 2369호)	/5
· 파견노동자 '착취'에 관한 법률(7.10 1면 2374호)	/16
· 신 남량특집 :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7.17 1면 2379호)	/26
· 환자부담 외면하는 '참여복지'(7.24 2면 2383호)	/35
· 안기부 엠티를 유스호스텔로?(7.31 1면 2388호)	/46
· 젊은 게 죄냐? : 18세 선거권 시행하라(8.7 1면 2393호)	/57
· 평화시위가 폭력적이라고?(8.14 1면 2398호)	/67
· 장세동까지 마저 잡읍시다!(8.21 1면 2400호)	/74
· 다윗과 골리앗 : 노무현의 개발독재(9.4 1면 2411호)	/98
· "내 대신 목숨 바쳐 싸워줘!" : 한국군 파병(9.18 1면 2417호)	/113
· 처벌 따블! : 이중처벌 사회보호법(9.25 2면 2422호)	/124
· 웃는 얼굴 다정해도... : 테러방지법 추진하는 국정원의 속내(10.2 2면 2427호)	/134
· 공교육 짓밟는 교육개방 특별법(10.9 2면 2430호)	/140
· 송두울 흔들기(10.16 2면 2435호)	/150
· 노동자 숙박하는 손배 가압류(10.23 2면 2440호)	/161
· 비정규직 전용 식사?(10.30 1면 2444호)	/169

· 수능, 그의 미래를 삼키다 - 수능 성적 비판 자살(11.6 1면 2449호)	/181
· 구원(?)의 발길? -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노동자 탄압(11.13 1면 2454호)	/192
· 21세기의 한국, 19세기의 닳은 꼴? - 한국에서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들(11.27 1면 2464호)	/213
· 전투병 파병과 테러방지법 강행으로 죽음의 늪에 빠져드는 노무현 정권(12.4 2면 2469호)	/226
·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잔칫상에 차려진 악법들(12.11 2면 2474호)	/239
· 정치 풍자가 선거법 위반?(12.18 2면 2479호)	/249
· 만화로 보는 2003년 10대 인권 뉴스(12.27 3면 2485호)	/263

클릭! 인권정보자료

· 대안을 찾아나선 반세계화 운동 -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7.4 1면 2370호)	/7
·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 자료묶음(7.11 1면 2375호)	/18
·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 『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7.17 2면 2379호)	/27
· 전쟁의 폭력을 기억하라 -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7.25 1면 2384호)	/36
·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한국의 히로시마』(8.8 1면 2394호)	/59
·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 『형사절차와 취약계층』(8.22 1면 2401호)	/76
·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 - 『이윤보다 생명이다』(9.5 1면 2412호)	/101
· 인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 『새벽을 깨우는 A4 한 장 : 인권하루소식이 전하는 161개의 인권이야기』(9.26 1면 2423호)	/125
· 한 장의 시디롬으로 인권운동 10년을 본다- 『인권하루소식 시디롬』(10.11 2면 2432호)	/144
·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10.24 2면 2441호)	/163
· 동화 속에서 찾아내는 인권퍼즐 - 『사람답게 아름답게』(11.7 1면 2450호)	/183
· 교회도 성폭력 예외시대 아니다 -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11.14 1면 2455호)	/194
·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11.21 1면 2460호)	/205
· 지구촌 불평등 거울 - 『불평등한 세계를 바라보는 123가지 방법』(11.28 2면 2465호)	/216
· 해외진출기업 감시활동 결산 - 『해외한국기업인권현황 백서』(12.5 2면 2470호)	/228
·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12.12 2면 2475호)	/241

인권영화/ 인권영화제

· 이주노동자의 삶과 동행한 네 편의 영화 - 인권영화제 제작 지원 작품 <여정> 배급 앞뒤(7.5 2면 2371호)	/10
· '제국'을 바라보는 7개의 시선 - 폭력과 억압 장치 고발하는 <옴니버스 제국> 제작 막바지(7.11 2면 2375호)	/19
·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8.2 2면 2390호)	/52
· 영화로 돌아온 99년 시인들의 합성 - 반세계화의 상징 담은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8.9 2면 2395호)	/62
· <열번째 반딧불> "미국의 테러가 전세계 테러 부른다" - 촛스키의 미 군사패권주의 비판, <파워 앤 테러>(8.22 2면 2401호)	/77
· 영상집단 '결'의 카메라가 담는 세상 -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일상과 내면의 목소리 담아낼 터"(9.5 2면 2412호)	/102
·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9.27 2면 2424호)	/128
· 장기수들의 미세한 삶의 결 그렸다 - 김동원 감독의 <송환>, 장기수들과의 10년 인연 담아(10.11 2면 2432호)	

· 올 가을 완성된 인권영화 4편을 만난다 - 25일 개막되는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10.21 3면 2438호)	/144
·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11.12 2면 2453호)	/157
· 혁명은 인권영화제에 나오지 않는다? - 앰네스티 국제영화제,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상영 취소 논란(12.17 2면 2478호)	/191
	/247

주간인권흐름

· 2003년 7월 1일 ~ 7월 7일(7.8 2면 2372호)	/12
·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7.15 2면 2377호)	/23
·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7.22 2면 2381호)	/31
·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7.29 3면 2386호)	/42
·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8.5 2면 2391호)	/54
·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8.12 2면 2396호)	/64
·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8.26 2면 2404호)	/81
·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9.2 2면 2409호)	/94
·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9.16 2면 2415호)	/110
·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9.23 2면 2420호)	/120
·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10.7 2면 2428호)	/136
·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10.14 2면 2433호)	/146
·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10.21 3면 2438호)	/157
·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10.28 3면 2442호)	/166
· 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11.4 2면 2447호)	/176
· 2003년 11월 3일 ~ 11월 10일(11.11 2면 2452호)	/189
·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11.18 2면 2457호)	/199
·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11.25 2면 2462호)	/210
·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12.16 2면 2477호)	/245
·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12.23 2면 2482호)	/255

이달의 인권

· 2003년 6월(7.1 2면 2367호)	/2
· 2003년 7월(8.1 2면 2389호)	/50
· 2003년 8월(8.30 3면 2408호)	/91
· 2003년 9월(10.1 2면 2426호)	/132
· 2003년 10월(11.1 2면 2446호)	/174
· 2003년 11월(12.2 2면 2467호)	/220
· 2003년 12월(12.27 2면 2485호)	/262

기타

·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12.2 3-4면 2467호)	/221-222
---	----------

- 오마이뉴스에 더 이상 기사를 실지 않는 이유 - 기자회견 탈퇴하고 하루소식 기사 제공 중단키로(12.4 2면 2469호) /226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12.10 2-5면 2473호) /234-237
- <2003년 중간사>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12.27 1면 2485호) /261

인권하루소식 합본 21호

펴낸 날: 2004년 5월

펴낸 곳: 인권운동사랑방

- 주소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3층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이메일 humanrights@sarangbang.or.kr
rights@chol.com
- 홈페이지 <http://www.sarangbang.or.kr>

값 1만원